

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84호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기원대회

비종교인, 외국인 만족도 높아 세계인 종교 문화 축제로 승화

조계종, 참가자 만족도 조사결과 살펴보니

지난해 12월부터 한달간 설문조사
고연령층, 비종교인, 외국인 만족
전체 만족도 100점 만점에 80점

행사장 접근 문제 및 영어통역 과제
평화도론편, 해외고승 법문 요청도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대회'가 종교가 없는 일반시민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달간 전문리서치기관 'INR플러스'에 의뢰해 내외국인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 수록, 종교가 없는 이일수록, 외국인에게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교 행사 아닌 하나의 축제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기원대회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기준 만점에 5.8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100점 만점도 환산시 80.12점에 해당한다.

만족도의 순위를 보면 △내용과 질적 수준이 5.8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5.84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광화문 광장이란 환경요인은 5.73점으로 4가지 질문 사항 중 후순위를 차지했다.

응답자간 특성에서는 남성(5.85점)이 여성(5.75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연령대는 60대(6.24점), 50대(5.98점), 40대(5.75점), 30대(5.49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례적으로 20대와 그 이하 연령층에서 높은 만족도(6.02점)를 보였다.

또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이(6.05점)가 종교인(5.80점)보다 만족도가 높고, 외국인(6.32점)이 내국인(5.72점)보다 만족도가 높아 세계평화 기원대회가 종교적인 행사를 넘어 하나의 축제행사이자

대회로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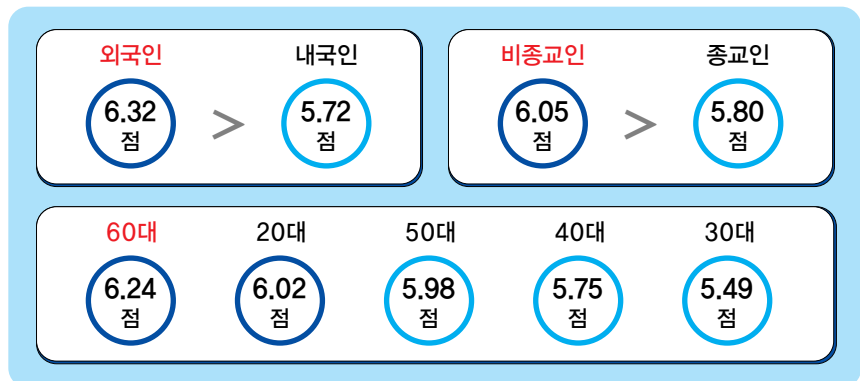
친절도 Best, 접근성 Worst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내용과 질적 수준에서는 특히 진행자의 친절 및 신속 대응(6.12점)이 1순위를 차지했다. 조계종 포교사를 비롯한 많은 불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것이 효과를 보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른 2가지 항목인 광복70주년 취재의 적절성, 행사내용의 유의성은 평

이밖에 기원대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다른 이에게 추천할 의향(5.89점)이 있으며 재참가 의향(5.82점)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6.25점) 높은 재참가와 추천 의사를 보였다. 이 같은 만족도 이유에는 외국인의 경우 행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한국불교와 고승들의 식견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불만족 사항으로는 내국인의 경우 행사준비기간 확보 및 일반인 중심 행사가 부족했음을 꼽았고, 외국인의 경우 통역 및 영어 안내 등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세계 평화 기원대회 만족도



균점수에 미치지 못해 향후 차기대회에서의 과제로 남았다.

만족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환경요인의 세부항목에서는 행사 참가의 용이성(5.60점)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안내표지판 등 안내(5.73점), 편의시설(5.73점)도 평균에 머물렀다. 반면 행사장 환경의 쾌적성은 5.84점을 기록해 전체 만족도 점수를 넘어섰다.

조계사 일대의 제등행렬에 이어 광화문광장의 평화기원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의 편의를 배려하는 것이 차기대회의 과제로 꼽혔다.

자발적인 불자 참여 필요

이번 세계평화대회의 참가동기를 살펴보면 참가자의 47.5%가 '대회 목적과 취지에 동참해서'를 꼽았다. 반면 '한국 불교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을 알고싶어서'는 23.5%, '주변에서 참가를 권유해서'가 25.1%가 나와 간화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개선사항으로는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사장 후미의 행사진행 전달 보강, 일반대중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외국인에 대한 영어 안내 보강, 해외 초청인사의 발언 기회 부여, 세계평화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 개최 등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구글서베이에서 한글과 영문, 중문, 일문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리서치가 진행됐으며 내국인 219명, 외국인 38명이 참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목각 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 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아! 봄소식 심고 매화가 왔구나'

지난 1월 폭설로 항공기 결항 등 교통이 원천마비됐던 제주도에 언제 그랬냐는 듯 봄이 벌써 왔다. 육지는 아직도 추위가 한창인 한반도의 첫 봄소식이다. 전령사는 추운 겨울을 버텨낸 매화. 오랜 인고의 기다림 끝에 봄을 맞이하는 설렘이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는지, 옛 선지식들은 봄꽃 매화(梅花)를 시와 계승 그림으로 예찬했다. 사진은 매화가 막 꽃망울을 터뜨린 제주시 관음정사에서 2월 10일 촬영했다. 쾌청한 날씨 덕에 활짝 피어난 매화는 사찰의 고풍스런 멋을 한껏 더한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조계사에 '꼬마평화도서관' 들어서

여는사람들, 미항사·전법회관에도 건립 추진

서울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 평화 사상을 알리는 '꼬마평화도서관'이 세워졌다. '꼬마평화도서관여는사람들' (대표 변태주, 이하 여는사람들)은 '붓다로살자'와 함께 2월 16일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 평화 관련 서적 30여권을 비치한 꼬마평화도서관을 설치했다.

꼬마평화도서관여는사람들은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어른이 두루 평화로워지려면, 책 읽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모토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다. 이들은 전국에 꼬마평화도서관을 1만개를 열겠다는 목표로 파주보리책놀이터, 사찰음식집 '마지', 제주도 새마

을회관 등에 꼬마평화도서관을 열었다. 지난 1월 17일에는 한국전쟁 노근리 참사 현장인 노근리평화박물관에 10번째 꼬마평화도서관을 설치한 바 있다. 꼬마평화도서관에는 평화와 관련된 책들이 구비돼 있으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꼬마평화도서관이 세워진 이날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생명평화기도가 500일을 맞는 날이었다. 붓다로살자는 그동안 세월호의 아픔을 풀자는 열원을 담아 1000일간 하루 1000매씩 100만매를 올리려는 기도를 해왔다. 꼬마평화도서관에는 '세월호 희망을 여는 길내기'라는

이름의 이름패도 함께 걸렸다.

변태주 여는사람들 대표는 "불교는 평화와 가장 가까운 종교"라며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 인근 전법회관과 우정충국공원에도 추가로 평화도서관을 열 예정이다. 미항사를 비롯한 다른 사찰과 교회, 성당 등에도 도서관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대표는 "도서관은 생기는 데 실제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민들끼리 밥집과 술집에도 도서관을 열자고 했다. 등산로를 비롯해 보다 많은 이들이 평화사상을 접할 수 있는 곳에 꼬마도서관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법정스님 불일암 무소유길 복원된다

송광사 탐전~불일암까지 1.5km 6월까지 안내판도 함께 정비

지난 2010년 임적한 <무소유> 수필의 저자 법정 스님이 생전 당시 자주 포행하던 전남 순천시 송광사에서 불일암까지의 '무소유길'이 새로 복원된다.

송광사 탐전서 불일암까지 1.5km 구간에는 늘 푸르름을 자랑하는 대나무숲길 50여m를 비롯해 아름답리 삼나무·편

백나무, 바람결에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는 상수리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현재의 조성된 길은 송광사를 떠나 1km 거리부터 경사진 바윗길이 시작돼 어린이나 노약자는 걷기 어려운 만큼 험난했다.

이에 순천시측은 바윗길 일부를 정비하고 좁은 폭을 넓히는 복원사업을 통해 6월 말까지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라고 2월 2일 밝혔다.

탐방객들이 찾기 쉽도록 이정표가 설

치되고 입구에는 안내판도 세워지는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75년부터 법정 스님이 거처한 불일암은 자정국사(1293~1301)가 창건해 자정암으로 불려오다 법정 스님이 중건하면서 '불일암'이라고 이름 붙인 현관을 내걸었다. 불일암 가는 길에는 법정 스님의 법어가 적힌 팻말 5개가 길잡이를 하며 무소유길임을 알려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 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인등·영구위패 시공



만 월등



정품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 단 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친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